

이제부터 성묘에는 조화 대신 생화* 어떠세요?*

매년 경상남도에서
약 177톤의 플라스틱 조화가 버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묘소에 놓여진 플라스틱 조화는
바람에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토양 오염 등 지구 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이었던 조화는
매년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되지만
시든 생화는 흙이 되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플라스틱으로 힘들어하는 지구를 위해
조화(플라스틱 꽃) 사용 근절에 우리모두 동참해주세요.

이제부터 성묘에는
조화 대신 생화*
어떠세요?*



경상남도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친환경 추모 문화 정착을 위해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에
우리 모두 동참해 주세요.

경상남도